

「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1월 15일, 박용선 의원 등 13인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1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

(2024년 1월 26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경민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,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, 봉투, 접시·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여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를 야기하고 있음

○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도지사가 수행하는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(안 제3조의2제1항)
- 도지사가 1회용품 줄이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조의2제2항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현주)

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1회용품이 환경 잔류, 미세화 등으로 인체와 생태계에 큰 환경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수행하는 1회용품 줄이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3조의2제1항은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1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·홍보사업,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,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, 다회용기 회수·세척재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,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과 소비 문화의 확립을 위하여 교육·

홍보가 필수적이고,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사업과 다회용기 회수·세척 재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은 경북도는 물론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안 제3조의2제2항이 1회용품 줄이기 지원사업을 전문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도지사에게 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, 또한 본조례 제6조(민간단체 등 지원)에서 이미 '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'고 규정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라 경북도에 별도의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.
- 안 제6조가 도지사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「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로 변경한 것은 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2021년 12월 30일 전부 개정되면서 제명이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.

다. 종합의견

- 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1회용품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자연분해 되기 어려워 환경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또한 1회용품 생산과 폐기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도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본

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.

-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,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